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10월 5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44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 정민숙 -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이 교회에 가자며 끊임없이 전도하였지만, 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 거절하고 다만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절기 행사 때에 간혹 교회에 가서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하루는 기이하고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검은색을 띤 이상한 물체가 다가와 갑자기 저를 덮치려고 하였고, 저는 십자가 모양의 빛이 비치는 한쪽 벽으로 얼른 뛰어가서 빛이 새어 나오는 곳에 손을 대고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으며 “예수님!” “십자가!”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검은 물체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이상한 꿈에서 깨어난 저는 어려서 교회에 갔던 때를 떠올리며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시골에서 한 작은 교회를 다니다가 남편의 직장을 따라 서울로 올라와서 한동안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천국에 계신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생전에 어머니가 열심히 섬기신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전과 달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건성으로 예배만 참석하며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았는데 당회장 조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이 크고 깊어지며 신앙생활이 향상되고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생활이 행복하고 목사님과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에서 직분을 주실 때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맡겨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회학교를 섬기는 기회를 주셔서 초등부에서 10년 넘게 봉사하다가 지금은 중고등부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에 전원성전에서 열리는 청소년 수련회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여행을 가서 신령한 침과 영적인 힘을 얻는 특별한 휴가입니다. 학생들을 축복하며 주 안에서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이 시간이 큰 기쁨이 되고, 다음 수련회를 기대하며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저의 남편은 오래 교직 생활을 한 후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당진에서 아들과 함께 농사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진을 오가는 생활을 하며 주말에는 산본으로 올라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며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주 충남 당진과 경기도 산본을 오가며 생활하는 것이 저의 몸에 무리가 되었는지, 어느 날부터 몸이 붓고 피곤한 이상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병원을 다니며 검진을 받은 결과 대상포진 진단을 받았습니다. 머리, 눈 그리고 얼굴 오른쪽 부위 곳곳에 붉게 발진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그 부위의 신경세포가 죽었다고 말 할 정도로 상태가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전문병원에 다니면서 신경세포가 죽은 것과 눈은 치료가 되었지만, 오른쪽 얼굴은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런 제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들 걱정하며 염려하였습니다.

2022년 봄에 대상포진이 발병하였는데, 가을에 권사 임직 청원서를 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상포진 증상 때문에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안타깝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기회라며 미루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상태가 심각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위축된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순종과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른쪽 얼굴 전체가 염증으로 붉게 물들었는데, 얼굴색이

점점 옅어지면서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실 상황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나의 뜻과 의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더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사무엘상 15:22)라고 한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중한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와 가족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조울증을 앓아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절제력이 부족했던 아들의 건강과 특히 금연을 위해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오래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어느 날부터 결심을 하더니 금연에 성공하고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도와주시고 섭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들이 끝까지 성도의 표지(標識)인 금연을 지속하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돌아보면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의 이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저의 앞으로의 바람은 남편이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 봉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과, 아들의 몸과 마음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소원도 주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딸이 저의 바람대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사위와 함께 부부가 방송동신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날이 갈수록 더 예쁘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편 119:105) 아멘. 보배로운 주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저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은 저의 삶도 변함없이 은혜의 빛,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교전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 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 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 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 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 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 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 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재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 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 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은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3권 (제4단원 :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제18과)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 **본문** : 마태복음 16:13-20
- **요절** :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 **찬송** : 찬송가 27장, 찬송가 93장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간단한 질문과 답변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변은 곧 구원의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한 채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치 기초도 든든히 닦지 않고 높은 건물을 세우려는 사람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터전은 오직 예수님 한 분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구원의 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예수님은 주(主)님이십니다.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이는 종들에 대한 주인의 절대적인 소유권과 권위를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칭호를 하나님께 사용하였는바, 이는 인간을 지으시고 그 생사 회복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칭호라 하겠습니다(마 1:22, 5:33). 한편, 성경은 이 칭호를 하나님께 대해서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막 11:3, 눅 2:11).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죄인된 우리를 자기 피로 값주고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고전 6:19~20, 빌 2:6~8).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9~11)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교회를 핍박하는 데 열심내던 자였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사로잡힌 이후에는 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롬 1:1, 빌 1:1)로 소개하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롬 14:8)고 하며 예수님의 주(主) 되심을 전파하는데 한평생 헌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답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2.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메시야’를 헬라어로 바꾼 것입니다. 원래 구약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리스도는 위의 세 가지 직분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칭호는 곧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해방시킬뿐더러 무력으로 열방을 지배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五餅二魚)의 기적을 행하시자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요 6:15).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없으며,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는 사도들의 경우를 보아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사도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자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오신 참된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살기 등등한 유대 관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행 2:36)고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행 5:42).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키 위해 오신 그리스도 이심을 알고, 이 사실을 전파하는 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에 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르기를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 1:35)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은 것은 비록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담의 혈통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 실상은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음을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는 성경 말씀은 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신적인 능력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후 삼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막 16:19), 장차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시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마 24:30).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파하는 데 열심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성도는 복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